

# 靑 “文, 백신 먼저 접종? 국민 불신 생기면 마다할 이유 없어”

### “현재까지 검토 안 해...불신 생기면 언제든 가능” 주호영 “먼저 접종해서 국민 불안감 해소해줘야”

청와대는 22일 아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먼저 접종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백

신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병관리청의 65

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방침을 전한 뒤 “지금 그게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 당국은 65세 이상에 대해선 추가 임상 정보를 확보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90%가 넘어섰다. 방침이 수정되지 않거나 불신이 생기지 않

으면 현재는 (대통령 먼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신이 생기면 언제라도 가장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안이 극심해질 경우, 언제든 주저 없이 선 접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 등 책임 있는 보건 수장이 공개적으로 먼저 접종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사용을 허락하고 국민들께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정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미국 등 세계 국가 지도자, 보건 수장은 생중계로 접종하며 국민 불안감 해소에 앞장선다”며 “우리나라도 백신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통령 등 보건수장의 공개접종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스**

## ‘국힘’ 34년 광주 중흥동 당사시대 마감...내달 상무지구 이전

### 전남도당은 무안 남악 입주

국민의힘이 34년 역사의 광주 중흥동 당사시대를 마감한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추진했던 광주 북구 중흥동 7층 규모의 당사가 올들어 매각됐다. 이로써 지난 1987년 민정당 시절 때부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들어선 당사가 34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내달 광주 상무지구, 전남도당은 전남 무안 남악에 새 동지를 마련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한나라당 시절 광주 당사 매각이 검토됐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차 매각을 추진해 지난해 말 책임자가 나타나 올들어 매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매각 대금 규모는 알

려지지 않고 있다. 현 중흥동 광주당사 앞의 한때 대학생들이나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의 집회가 수없이 열렸다. 문상옥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시당의 가장 큰 현안인 당사를 다음 달 서구 상무지구로 이전하겠다”면서 “당사 이전이 완료되면 새மை 조직을 정비해 1년 여 남은 대선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 與 “4차 지원금, 2·3차보다 훨씬 클 것...28일까지 당정 합의”

###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 간 집중 논의가 이번 주 진행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2·3차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월 가계동향 고용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수가 크게 줄고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해 가계소득과 소비가 동반으로 감소했다”며 “소득, 소비, 고용이 위축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20조원 규모를 주장 중인 민주당과 최대 13조원을 제시한 정부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두텁게, 넓게, 충분하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원칙은 지도부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다”며 “다만 세부적인 가락은 이번 주 당정 간 논의가 집중될 것이기에 당정 협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 2·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더 두텁고 더 넓게 충분하다는 원칙 하에서 당정 간 협의를 이뤄질 것”이라며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차 때보다 규모가 컸던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400만~600만원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이용구 차관 소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며 이용구 차관(오른쪽)을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신현수, 文대통령에게 거취 일임...“최선 다해 직무 수행”

휴가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 수행 의지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신

수의(辭意)를 표명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두 차례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았고, 지난 18일부터 주말을 거쳐 나흘 간 휴가를 다녀와 이날 청와대에 복귀했다. 신 수석은 사의 파동 이후 지인들에

신을 지킨 일종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했다는 것이니 (사의 논란은) 확실하게 일단락된 것”이라며 “사의 표명 있었고, 반려 하였고, 그 뒤에 진행된 사안은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으로 본다”며 “무슨 결정을 언제할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수석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거취를 일임하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검인사 패싱’ 논란에 사의 표명...나흘 휴가 후 업무복귀 靑 “사표 논란 확실히 일단락...대통령 결정할 시간 남아”

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갈등을 겪고 두 차례에 걸쳐

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는 것은 자진해서 사의를 철회하지 않는 선에서 그동안의 소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